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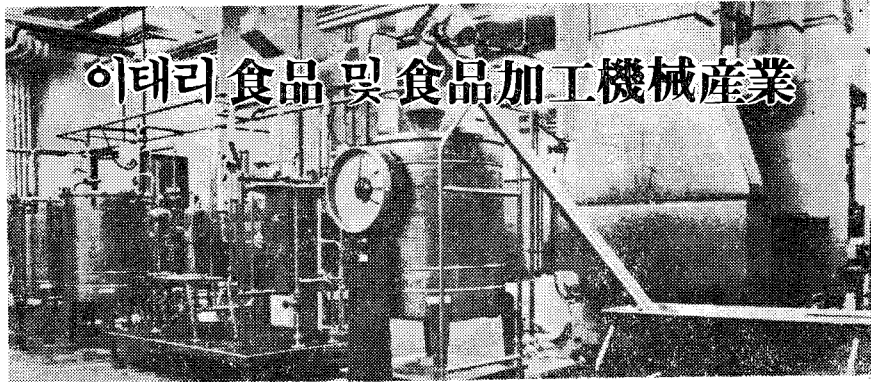
特輯② / 이태리 食品産業

<目 次>

1. 이태리 식품 및 식품가공 기계 산업
2. 이태리 식품 기계공업 현황
 - ① 제과공업 기계산업
 - ② 제과·제빵공업 기계산업
 - ③ 제분·사료·쌀가공 기계산업
 - ④ 골드체인 기기 및 설비산업
 - ⑤ 식용유 기계산업
3. '82 이태리 식품·음료 관련 산업전시회

주한 이태리貿易館은 양국간의 經濟協力 증진을 목적으로 오는 9월21일부터 24일까지 조선히otel에서 『이태리 食品工業 技術 심포지엄』을 개최 키로 했다.

이 『심포지엄』 참가자는 물론 食品分野 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태리 貿易館의 협조를 얻어 『이태리 食品 및 食品加工機械産業現況』을 각 分野별로 알아본다. (編輯者 註)



식품 가공 산업은 이태리 경제구조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부가가치와 고용적인 면에서 동 산업은 기계, 섬유(의류)산업에 뒤이어 제 3위를 차지하고 있다. 1977년의 시장 가격으로 볼 때, 기계산업은 그 부가가치가 12조 4,000억 리라에 달했으며, 섬유(의류)산업은 8조 4,000억 리라, 식품 산업은 6조 3,500억 리라에 달했다.

식품 가공 산업과 농업분야의 성장 추세는, 1960년에서 1980년간의 기간 동안에 부가가치율이 28%에서 48%로 증가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부가가치는 1960년대에 농업 및 원료 생산 분야에서 연간 3% 증가에 그쳤던데 비해, 식품가공 산업 분야에서는 거의 연간 8%나 증가했다.

식품 산업—경제총액

(20인 이상 고용회사)

산 업	총 매출액		총 생산액		투 자 액		종 업 원 수	
	1976	1979	1976	1979	1976	1979	1976	1979
계 분 및 면 류	1.563	2.655	227	361	42	60	22.0	20.2
계 과 업	1.242	2.103	451	694	47	102	46.8	41.9
통 조 립	3.289	5.450	597	991	92	159	61.6	62.8
치 즈 및 낙 농 품	1.595	2.411	216	352	35	75	20.9	19.9
식 물 성 동 물 성 유 지	854	1.332	110	153	18	22	7.2	6.7
기 타 식 품	1.970	3.184	356	539	68	133	22.7	21.8
주 류 (酒類) 용 음 료	1.324	2.169	350	565	58	82	24.2	21.9
비 주 류 용 음 료	321	542	159	243	35	56	11.8	10.9
총 계	12.158	19.856	2.466	3.899	395	689	217.2	206.4

(단위) 총 매출액 : 10억리라, 총 생산액 : 10억리라, 투자액 : 10억리라, 종업원수 : 1,000명

식품 가공 산업의 평균 고용자 수는 1978년부터 1980년의 3년간 49만명였는데, 이는 제조업 총취업인구의 9%에 달하는 숫자이며 국가 총취업인구의 25%를 차지하는 수입이다.

같은 기간 동안에 수출은 상당히 증가했다. 내수가 줄어들자 식품 산업은 특히 식품가공

분야에서 해외의 신시장을 개척했다. 이태리 무역수지의 적자는 단지 식품원료 수입에만 그쳤으며 가공 식품의 수출입은 균형을 이루고 있다.

다른 선진국들과 거의 같은 기술 수준을 가지고 있는 타 산업들과 이태리의 식품 가공산

업을 비교해 보면 이태리 산업은 매우 분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높은 생산성의 공장을 가진 중소기업 규모의 회사들이 많다. 사실상 40개 대기업이 차지하는 식품시장의 점유율은 이태리가 30%, 프랑스가 50%, 영국이 80%이다.

이태리의 농산물·식품 가공산업은, 치열한 경쟁속에서 적당한 가격과 효율을 보장하면서 농업 분야에서 국내의 생산·배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중소기업 규모회사들의 건전한 조직이 더 적당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델이다. 물론 인스턴트식품, 스낵, 고도로 정교해진 식품들도 잘 팔리고 있지만, 전통적인 식품에 대한 기호에 부응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국제적인 추세와는 다른 현상이다.

이태리 식품산업은 배급 요청과 이태리인의 기호에 적합한 다양한 공급 시장에 잘 적응하고 있다. 중소기업 규모의 공장들에, 성공적인 이태리 기계산업으로 부터 얻은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식품산업은 높은 생산성과 융통성의 적당한 배합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시스템의 성공은, 독점적인 거대한 식품 기업만이 식품산업 조직과 시장 조직을 형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해 준다. 약간 큰 이태리의 몇몇 회사들은 주로 우유나 낙농품, 분제품 그리고 고기 저장산업분야에서 볼 수 있다.

저장채소, 냉동식품, 낙농품 등은 주로 중소기업 규모의 공장들에 의해 생산되며, 생산보다는 시장지배에 힘을 쏟아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들에 의해 1980년도에 식품 산업 총 판매액의 75%는 개인 기업에 의해 생산되었으며 25%는 대기업들에 의해 생산되었다. 스타(9,000억 리라), 갈바니(5,500억 리라),

훼레로, 에리다니아, 아이. 비. 피., 바릴라, 파르말라트, 알리바르, 조합들은, 판매 노력에 별로 요구되지 않는, 농업 생산에 직접 연결되어 있는 몇몇 생산품에 집중되어 있다. 식품 가공 조합은 이태리 식품 산업 판매액의 8%에 해당하는 3조 2,000억 리라 어치를 판매했다. 분제품과 저장 채소 분야에서는 1980년도 총 매출액의 3.3%가 공급되었다.

1980년도에 식품 가공을 위한 기계 및 설비 산업은 지속적인 해외 수요와 회복되는 국내수요에 대치하면서 전통적인 호기기를 계속해서 누렸다.

식품 산업을 위한 기계와 완전 플랜트 생산에서 선두 그룹을 차지하고 있는 이태리는 유럽의 수출국들 중에서 독일 다음의 위치를 고수하고 있다. 1980년도의 식품·음료 가공 산업을 위한 이태리의 기계 및 설비의 수출입상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980년도에 총수출액은 전년도에 비해 21% 증가율을 보이면서 3,260억 리라에 달했다. 이태리의 주요 시장은 유럽이지만(총 수출의 48%) 1980년에 한국에 6억 7,400만 리라에 달하는 식품 기계를 수출하기도 했다. 이 분야에서의 이태리 수입은 920억 리라였으며

기계 및 설비 수출입상황

(단위 : 10억 리라)

기 계 및 설 비	수 출	수 입
제분 및 사료 제조업	36	7
제당업	0.4	0.05
제빵, 면류, 분제품, 제조업	50	16
청량 음료 제조업	76	22
식물성, 동물성 유지 제조업	11	2
제과업	21	4
포도주 제조업	14	5
낙농품 제조업	10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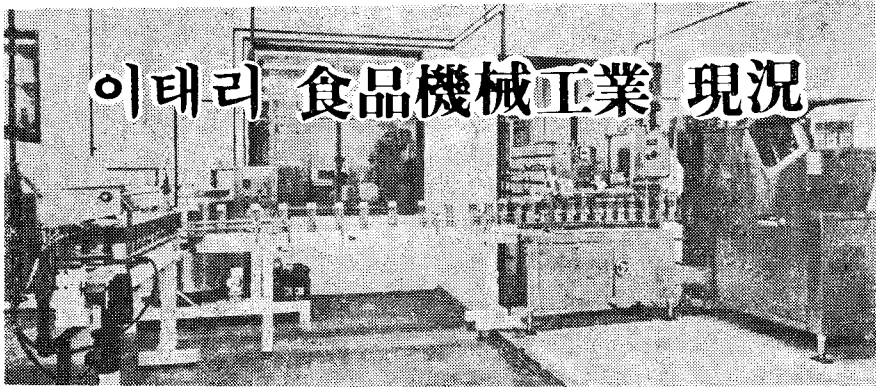
*1원=0.56 리라

1979년보다 41% 증가율을 보였다.

수출은 계속 증가해서 현재는 총 생산의 65%를 수출하고 있다. 생산에서 얻은 고도의 기술을 바탕으로 이태리는 △ 제빵 및 밀가루 반죽 기계 및 설비, △ 면류 제조 기계 및 설비, △ 야채, 과일등의 저장 가공, 저장식품 등을 위한 기계 및 설비, △ 포도주, 기타 주

류 제조 기계 분야에서 세계 생산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개발 도상국과 신흥 공업국들에 대한 수출 증가는 괄목할 만 하다. 이러한 경향은 해외 시장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농산물을 직접 국내에서 가공할 수 있게 해주는 기계 및 설비에 대한 그들의 수요가 점점 늘어가기 때문이다.



이태리 식품 기계의 국별 수출현황

① 제과 공업기계 산업

이태리에는 약 50여 제과기계 제조업체가 있으며, 이에 약 1,000명의 전문인이 고용되어 있다. 단 1개의 업체만이 500명 이상의 전문인을 고용하고 있고, 다른 업체들은 50명 이내의 전문직 고용인이 종사하고 있고, 업체의 대부분은 업무분산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이들중 주요업체로는 밀라노의 Carle e Montanari로서 510명의 전문인을 고용하고 있고 Ruffinatti di Bruino (Torino 소재)가 40명, 곁 제조기계만을 생산하는 Mazzoni di Busto Arsizio가 40명씩을 각각 고용하고 있다. 전분야에 걸쳐 기계를 생산하는 유일한 회사는 Carle e Montanari이며, 제품의 약 70%는 카카오를 원료로 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계들이다. 나머지 업체들은 한 두개 분야에 전문

국	별	수출액	총수출에 대한비율 (%)
유 럽		153.6	47.2
	E.E.C.	95.5	29.3
	기타 유럽 국가들	45.6	14.0
	동유럽 국가들	12.4	3.8
아프리카		49.8	15.3
	북 아프리카	25.4	7.8
	중남미 국가들	49.3	15.1
아시아		41.7	12.8
	중 동	29.0	
	기타 아시아 국가들	11.9	
	한 국	.674	
	오스트레일리아, 오세아니아	5.0	1.5
	기 타	.126	.03
총	계	325.3	

(단위 : 10억 리라)

화되어 있다.

업체 전체로 보면, 제조업자들의 대다수가 설탕을 기본으로 하는 제품 생산기계를 제조하는데 이들 중에서 Euromec, Mazzoni, Oma

등이 Chewing-gum 생산기계를 만들며 Maida는 풍선껌 기계를 생산한다. Cacao를 원료로 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계들을 보면, 업체의 대부분은 두번째 단계인 성형기만을 생산한다.

특히 Carle e Montanari는 이태리 뿐만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제과공업의 선두를 달리는 기업이며 이태리 시장의 60% 이상을 석권하고, 선발 4개업체가 시장전체의 77.5%를 점유한다.

제과 공업기계의 수출은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며, 내수의 약 72%를 상회한다.

특히, Carle Montanari와 Ruffinatti는 생산의 전량을 거의 수출하며 전세계에 판매 대리점망을 가지고 있다. (한국 대리점 Cosa Liebermann Co., Ltd. : CPO BOX : 2625 Seoul 100, Tel. 794-5713) 이들 외에도 선두의 6개 업체의 생산액중 50% 이상을 수출한다.

세계시장에서 이태리의 경쟁국인 서독은 주로 지속적인 자동생산시설을 제조하며 시장의 한 부분을 점유하고 있지만, 이태리 제과기계들은 비지속적 생산시설을 기본으로 하여 각 기계가 최대한의 융통성과 응용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세계 시장을 전체적으로 Serve 하고 있다.

<표 1> 제과공업기계 생산액과 주요업체의 시장 점유율(1981)

업 체 명	생산액(단위 백만리라)	시장점유율 (%)
Carle & Montanari	25,000	62.5
Delver	3,000	7.5
Ruffinatti	1,800	4.5
Euromec	1,200	3.0
Mazzoni	1,000	2.5
Maida	800	2.0
Ommr	600	1.5
기 타	6,600	16.5
총 계	40,000	100

<표 2> 주요 제과 기계업체의 해외 매출액과 수출비중(1981)

업 체 명	해외매출액 (백만리라)	수출비중도 (%)
Carle & Montanari	22,500	90.0
Ruffinatti	1,800	99.0
Delver	2,100	70.0
Euromec	800	70.0
Mazzoni	500	50.0
Guisso	170	70.0
기 타	1,130	14.5
총 계	29,000	72.5

▲ 주요 업체 명단

- ★ Maida S.r.l.
Via Bossi, 21
10144 Torino
- ★ Ruffinatti G. & C. S.a.s.
Viale Ferraris, 30
10090 Bruino
- ★ Euromec S.r.l.
Via Trieste, 32
24057 Martinengo
- ★ Carle e Montanari S.p.a.
Via Neera, 39
20141 Milano
- ★ Gianazza F. Ili S.p.a.
Viale Cadorna, 78184
20025 Legnano
- ★ OMMR
Via Togliatti
20067 Tribiano
- ★ Mazzoni G.S.p.a.
Viale Trentino, 10112
21052 Busto Arsizio
- ★ Delver S.n.c.
Via Respigni, 92
41100 Modena

② 제과·제빵 기계 공업

1980년도 이태리의 제빵·제과 기계설비 제

조업체는 66개, 총 고용인원은 1,870명에 달한다. 이 중 59개업체는 이태리 고유의 빵과 과자를 만드는 기계를 생산하고 있으며 한 회사만이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제빵기계를 제조한다. 그리고 나머지 6개 업체는 두 가지를 다 생산하고 있다.

300명의 종업원을 가지고 있는 Polin의 Verona는 가장 고도화된 구조를 가지고 전통적인 기계 설비와 오븐을 생산한다.

이태리 과자시장은 PMB회사가 석권하고 있는데 이회사는 자사 브랜드로 제품을 판매하고는 있지만 행적적인 면은 Polin의 규제를 받는다.

Marano Vicentino의 Berto는 240명의 종업원이 있으며 종업원수로는 이 분야에서 서열 2위이고 매출액은 가장 많으며 전통적인 기계와 함께 자동설비도 생산하고 있다.

Roberto에 위치하고 있는 종업원 130명의 Simer는 대량생산을 위한 제빵설비를 제작하고 있다.

Marano Vicentino에 있는 종업원 120명의 Sottoriva는 전통적인 기계와 자동설비를 생산하며 총 매출액 중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70%에 달한다.

종업원 80명의 Dominici di Collegno는 제빵 기계로 매출액의 30%를 실현시키고 있다.

Treviglio에 위치하고 있는 종업원 55명 규모의 Esa Taurus는 전통적 제빵 기계를 주로 생산하고 있으며 소형설비도 설계하고 있다. 이 분야의 기업분포는 매우 집약되어 있으며 최대 4개기업이 전 생산량의 36%를 생산하고 8개 대기업의 생산량은 54%에 달한다.

기계의 가격을 소개하면, 반죽기계, 절단기계, 3개의 로울링 기계로 구성되는 중간 규모의 전통적인 제빵기계 한셋트의 가격은 3,000만 리라 정도이고 3개의 주요 제과기계 즉 반죽을 펴는 기계, 믹서, 반죽 리파이너의 총가격은 800만~900만 리라이며, 해외시장에서의 판매는 현지 대리점 혹은 판매 독점 대리점을 통하거나 생산업체의 영업부서에서 직접 이루어지기도 한다.

대량 생산을 위한 제빵설비의 가격은 생산라인의 수, 생산능력, 자동화 정도에 따라서 1억 5천만 리라부터 10억 리라 이상까지 다양하다. 자동설비에 관한 기술적인 서비스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분야의 회사들이 특히 유의하고 있으며 판매 전후의 서비스는 설비 기술 담당직공의 훈련도 포함하고 있다.

1980년도에 이 분야에서 총생산량의 28%가 수출되었다. 5개 최대기업은 총수출의 52.8%를 수출했으며 Orlandi와 Simer는 매출액의 60% 이상을 수출했다.

<표 1> 제빵·제과 기계 생산업체와 고용인원(1980)

종업원	생 산 업 체		총 종 업 원		특 정 종 업 원	
	수	%	수	%	수	%
15명 미만	37	56.1	345	18.4	320	19.2
15~50명	20	30.3	600	32.1	500	30.0
50~150명	7	10.6	385	20.6	380	22.8
150명 이상	2	3.0	540	28.9	465	28.0
합 계	66	100	1,870	100	1,665	100

<표 2> 주요기업별 매출액과 비중(1980)

업 체	매 출 액 (단위 : 10억리라)	비 중(%)
Berto	11.0	14.7
Sottoriva	6.0	8.0
GPA Orlandi	5.6	7.5
Polin	4.3	5.8
San Cassiano	4.0	5.3
Bertuetti	4.0	5.3
Ostali	3.0	4.0
Esa Taurus	2.7	3.6
Simer	2.5	3.3
Bianchi	2.1	2.8
기 타	29.8	39.7
합 계	75.0	100

<표 3> 주요기업별 수출액과
총수출액에 대한 비중(1980)

업 체	수 출 (단위 : 10억리라)	총수출액에 대한비중(%)
GPA Orlandi	3.7	17.3
Sottoriva	2.3	10.8
Berto	2.2	10.3
Simer	1.8	8.4
Bertuetti	1.3	6.0
Ostali	1.0	4.7
San Cassiano	0.9	4.2
Polin	0.8	3.7
Bianchi	0.3	1.4
Esa Taurus	0.1	0.5
기 타	7.0	32.7
합 계	28	100

▲ 주요 생산업체 명단

- ★ Esa Taurus S.P.A.
Via Milano, 36
24047 Treviglio
- ★ Simer S.P.A.
Via del Garda, 34
38068 Rovereto
- ★ P.M.B.
Via Archimede
37036 S. Martino Buon Albergo

- ★ Polin Ing. & C. S.a.s.
Viale dell'Industria, 9
37100 Verona
- ★ Berto S.a.s.
Via Vittorio Veneto, 43
36035 Marano Vicentino
- ★ Sottoriva Giuseppe & Claudio F. Ili

제분 · 사료 · 쌀가공업 기계

이들 분야의 생산업체는 모두 30개에 달하며 총 종업원수는 3,100명인데 이들 중 대부분, 즉 전체 고용인원의 67.8%가 8개 대기업인 Ocrim, Golfetto, Sangati, Berga, Roncaglia, Ballarini, Sim Bianca, Beccaria에 속해 있다. 이 중 Ocrim은 500명 이상의 종업원을 가진 가장 큰 기업이다.

<표 1> 종업원수별로 본 생산업체와 고용(1980)

종업원수	생산업체		종업원수	
	수	%	수	%
500명 이상	1	3.3	600	19.4
250명~499명	3	10.0	900	29.0
100명~249명	4	13.3	600	19.4
10명~99명	22	73.4	1,000	32.2
합 계	30	100	3,100	100

총 매출액별로 생산업체를 구분하면 하나의 집중현상을 볼 수 있다. 즉, 전 고용인원의 59.4%가 6개 대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들의 총 매출액은 각각 50억리라가 넘는다.

이들 기계생산업체들은 다음과 같이 크게 3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 A그룹

국내에 설비 건설에 필요한 일체의 기계를 공급하고 조립·검사하며 고정설비(건물·콘

<표 2> 매출액별로 본 생산업체와 고용(1980)

매출액	생산업체		종업원수	
	수	%	수	%
100억~200억리라	4	13.3	1,500	48.4
50억~90억리라	2	6.7	340	11.0
10억~40억리라	15	50.0	730	23.5
10억리라 미만	9	30.0	530	17.1
합 계	30	100	3,100	100

크리이트 구조)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제공하며 이러한 활동을 독점적으로 하는 회사들이 이 그룹에 속한다. 대기업 혹은 대기업보다는 좀 작은 규모를 가진 이들 회사들은 수출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매출액의 상당부분이 수출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이들의 설계능력과 양질의 설비 덕분에 외국의 대기업들과 해외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다.

Golfetto, Sangati, Roncaglia는 제분공업에 관한 기계와 설비분야에서, General Design은 사료공업에 관한 기계 설비분야에서 그리고 Olmia는 쌀 가공업 설비분야에서 각각 이 그룹을 대표하고 있다.

*** B그룹**

이 그룹의 기업들은 보통 소규모의 기업들로서 한 분야에 전문화되어 있고, 특정분야에 한정된 기계만을 생산하고 있으며, 고객에게 전체 설비를 제공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이러한 경우에는 설비의 완전을 기하기 위해, 부족한 기계류를 대기업으로부터 구입하고 있다. 이 그룹이 담당하고 있는 수출은 얼마 되지 않으며 종종 하청계약으로 이루어진다. 제분업 기계 분야의 Socama, 사료공업 기계를 생산하는 Box-Car, Sicom, Tendrini 등이 이 그룹에 속하며 쌀 가공업 기계류를 생산하는 중소업체들도 역시 이 그룹에 속한다.

*** C그룹**

생산 기계류의 다양화로 특정지워지는 이들 기업들은 제분업뿐만 아니라 사료공업분야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중 Bühler-Miag는 규모면에서는 별로 크지는 않지만 쌀 가공업 분야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기업들은 대규모 설비의 설계를 할 수 있는 업체들로서 대부분이 대기업들이며 해외 시장에서 이들의 활동은 괄목할만하다. 이 그룹에 속하는 기업으로는 Ocrim, Berga(이들 두 기업은 곡물을 적하, 양하할 수 있는 항구 시설도 건설하고 있다), 그리고 동명의 스위스회사의 이태리 자회사인 Bühler-Miag 등을 들 수 있는데 이 중 Bühler-Miag는 이태리 시장내에서 주요 수입업체이기도 하다.

이 분야의 30개 업체를 살펴보면 이들중 15개 업체는 제분업에 관한 기계 설비 건설뿐만 아니라 사료공업에 관한 기계설비 건설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대기업들 중에서 Berga, Ocrim, Bühler-Miag, Baldeschi e Sandreani들은 두 분야에서 모두 활동하고 있으며 Bühler-Miag는 쌀가공업 기계, 설비건설도 하고 있다.

이 분야의 1980년도 총 매출액은 약 980억리라였다. 생산활동은 매우 집약적이었으며 턴키 베이스 방식의 설비를 설계 건설할 정도의 대기업들이 총 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생산했다. 특히 4개 최대기업의 매출액은 이 분야에서 56%를 차지했으며 8개 대기업의 매출액은 약 74%에 달했다.

1980년도의 분야별 매출액을 보면 제분업기 제설비가 480억리라, 사료공업기계설비가 450억리라, 그리고 쌀가공업 기계설비는 50억리라에 각각 달했다.

<표 3> 제분업 기계 : 다양한 활동과 기타 분야에서의 생산다양화를 실현한 기업들의 매출액 할당과 分화 (1980)

기 업	제분업기계설비	사료공업기계설비	쌀가공업기계설비	타 분야에서의 활동
Berga	36.0	64.0	—	—
Ocrim	30.0	70.0	—	—
Bühler-Maig	29.0	19.0	2.0	식용유, 제과업설비, 화학 플라스틱 공업 설비(50.0)
Baldeschi e Sandreani	75.0	25.0	—	—
Sim-bianca	5.0	30.0	—	화학제품의 저장, 믹스, 운송(65.0)
Brambati	77.0	7.6	15.4	—
Favini	30.0	70.0	—	—
Golfetto	100.0	—	—	—
Sangati	00.0	—	—	—
General Design	—	100.0	—	—
Olmia	—	—	100.0	—
Box-Car	—	100.0	—	—

<표 4> 주요 기업들의 생산과 매출액

업 체	단위 : 10억리라	%
Ocrim	20.0	20.4
Sangati	13.0	13.2
Berga	11.0	11.2
Golfetto	11.0	11.2
Ballarini	5.0	5.1
General Design	5.0	5.1
Baldeschi e Sandreani	4.0	4.1
Buhler-Miag	4.0	4.1
Sim-Bianca	3.5	3.6
Olimia	2.0	2.0
기 타	19.6	20.0
총 계	98.1	100

국내 기계 사용업체의 낮은 투자경향 때문에 내수시장이 침체하자 기계 생산업체들은 수출로 눈을 돌리게 되었다. 해외시장에서 매우 활동적인 기업들은 턴키베이스 방식의 설비를 제공할 수 있는 정도의 업체들인데 이는 해외 수요가 점점 대량생산 설비 건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의 일부분은 몇몇의 유럽 국가들(프랑

스, 서독, 스위스)과 동부 유럽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부분은 비유럽 국가들 즉,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극동 지역으로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설비업체들은 고정설비를 포함한 전 설비의 설계를 해주고 있으며 설비는 동 생산업체가 직접 조립전문 기능공을 파견해서 조립, 시운전을 해주고 있다.

이 분야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적으로 총 매출액의 60%에 달하며, 특히 내수가 상대적으로 작은 제분업 기계분야에서는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쌀 가공업기계에 관해서는 두 개의 대기업

<표 5> 분야별 수출액과 수출이 전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1980)

분 야	수출(단위 : 10억리라)	생산량에 대한 수출비중
제분업 기계설비	30.7	64.4
사료공업 기계설비	22.1	49.1
쌀가공업 기계설비	2.7	50.1
합 계	55.5	56.6

(Gariboldi와 Olmia)이 생산량의 거의 전량을 수출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체들이 국내시장을 독점적으로 장악하고 있다.

▲ 주요 생산업체 명단

- ★ Beccaria D. & C. S.a.s.
Via Sperino, 40
12030 Scarnafigi
- ★ Olmia S.a.s.
Corso Fiume, 60
13100 Vercelli
- ★ General Design
Via dell'Industria
24040 Filago
- ★ Ocrim S.P.A.
Via Massarotti, 76
26100 Cremona
- ★ Box-Car S.r.l.
Piazza Velasca, 5
20122 Milano
- ★ Gariboldi Attilio
Via Pienza, 20
20142 Milano
- ★ Golfetto S.P.A.
Via Temanza, 1
35134 Padova
- ★ Sangati S.P.A.
Via T. Aspetti, 232
35133 Padova
- ★ Sicom S.a.s.
Via XXV Aprile, 11
35010 Limena
- ★ Sim-Bianca S.r.l.
Via Marescalca, 2
44042 Cento
- ★ Socama S.r.l.
Via Cartesio, 2/1 Fraz. Villa Bagno
42100 Reggio E.

④ Cold Chain 기기 및 설비산업

각기 다양한 영업활동을 하는 업체들로 이뤄진 이 분야는 자동냉장설비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Samifi Babcock, Technofrigo Europa 와 냉동설비의 Dell'Orto, Tisselli, Technofrigo Europa, G.D.F 등으로 이뤄져 있다.

특히 위의 Dell'Orto, Termomeccanica, Samifi Babcock, Technofrigo Europa 등은 터키 베이스 계약에 의해 생산을 하며 냉장가구 생산이나 냉동시설 설치 활동을 하는 업체들이 있으며 냉동설비의 부품들은 주로 부품 전문 생산업자들에 의해 조달되며 이들 냉동설비업자들에 의해 조립 및 설치된다. 이태리에는 Cold Chain설비를 제조하는 140여 업체가 있으며 이 분야에 12,500명이 종사하고 있다. 냉장설비에 활동하는 업체들은 분야 밖의 기계들이나, 특히 저장설비 분야에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Samifi와 Technofrigo 등은 음식물 저장을 위한 인공냉각설비나 설비의 개별적인 부분과 얼음제조기와 같은 부수적인 기기들을 생산하며, Termomeccanica Itallana는 폐수처리나 제염처리에 사용되는 수처리설비를 제조하며 또 한편으로는 단순기계 생산으로서는 다양한 산업용 펌프를 제조하고 있다.

이 분야에서 Iberna, Costan, Termomeccanica, C.O.F. 등이 전체 생산의 30%를 점하고 있으며 선방 8개 업체가 전체의 44%를 차지하고 있다.

Cold-Chain산업은 수출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산업용 냉장기기, 가구, 장치 등은

〈표 1〉 Cold Chain 설비 생산액과
주요 업체의 시장점유율(1981)

주요 업체	설비생산액 (10억리라)	시장점유율 (%)
Gruppo Iberna	48.0	10.2
Costan	42.0	8.9
Termomeccanica Italiana	25.0	5.3
C.O.F. Refrigerazione Arredamenti	21.6	4.6
Arneg	20.4	4.3
Technofrigo Europa	19.2	4.1
Detroit-Sem	18.2	3.8
Tasselli	16.9	3.6
Samifi Babcock	14.3	3.0
Dell'Orto	14.0	3.0
기 타	232.4	50.8
총 계	472.0	100

〈표 2〉 업체별 Cold-Chain 설비 수출액과 점유율

업체명	수출액 (10억리라)	점유율(%)
Iberna	24.0	8.8
Costan	21.0	7.7
Arneg	12.4	4.5
C.O.F	10.8	3.9
Samifi Babcock	9.6	3.5
Detroit-Sem	6.7	2.4
Termomeccanica	7.5	2.7
Technofrigo Europa	7.0	2.6
Surfrigo	5.6	2.0
Tasselli	5.0	1.8
Carma	4.4	1.6
Dell'Orto	4.2	1.5
기 타	156	55.9
총 계	274.2	100

유럽 생산량의 1/3을 생산하며 EEC 전체시장에 수출을 하고, 1981년에 수출액은 생산량의 58%를 점하였다.

▲ 주요 업체 명단

- ★ Carma S.P.A.
S.S. Casale-Torino km. 5,000
15030 Coniolo Monferrato

- ★ Termomeccanica It. S.P.A.
Via del Molo, 1
19100 La Spezia
- ★ Dell'Orto Ing. Giuseppe S.P.A.
Via Merano, 18
20127 Milano
- ★ Iberna S.P.A. Congelatori
Via Emilia, 26
20090 Buccinasce
- ★ Samifi Babcock S.P.A.
Viale dell'Industria, 15
20040 Caponago
- ★ Tasselli S.P.A.
Viale Diaz, 26
46029 Suzzara
- ★ Costan S.P.A.
Limana
- ★ Surfrigo Nord S.n.c.
Bivio S. Felice
Trichiana
- ★ Arneg S.P.A.
Via Venezia
35010 Marsango
- ★ Detroit-Sam. S.P.A.
Via Galilei, 7
34074 Monfalcone
- ★ Technofrigo Europa S.P.A.
Via Matteotti, 161
40013 Castel Maggiore
- ★ COF S.P.A.
Zona Industriale
55060 Guamo

⑤ 식용유 기계공업 산업

이태리의 유공업 기계산업은 중소기업들이 주축으로 되어 있다. 1980년도에 유공업을 위한 기계 및 시설을 제조하는 회사는 16개였으며, 총 고용인원은 1,795명이었고 이 중에서 전문직 종사자는 1,125명이었다. 이들 제조업

자 중 Peralisi 그룹과 Costruzione Meccaniche Bernardini는 각각 200명의 전문적인원을 고용하는 선두그룹을 이루며 특히 스웨덴국적의

<표 1> 업체수와 고용인원별 구분(1980)

구 분	업 체 수	고용자수
50명 이하	9	230
51명 이상 200명 이하	4	415
201명 이상	3	1,150
총 계	16	1,795

<표 2> 주요 기업의 매출액 및 시장 점유율(1980)

업 체	매 출 액 (10억리라)	시장점유율 (%)
Gruppo Peralisi	18.9	27.2
CMB	10.0	14.4
Alfa Laval	8.5	12.2
Rapanelli	6.5	9.4
Gianazza	5.3	7.6
OMT	4.5	6.5
OMI Sud	4.5	6.5
De Vita	4.0	5.8
기 타	7.2	10.4
총 계	69.4	100

<표 3> 올리브유 지속적 Cycle 생산설비, 생산액 및 시장점유율(1980)

업 체 명	생 산 액 (10억리라)	시장점유율 (%)
Gruppo Peralisi	18	43.6
Alfa Laval	8.5	20.6
Rapanelli	6.0	14.5
OMT	4.0	9.7
De Vita	3.0	7.3
기 타	1.8	4.3
총 계	41.3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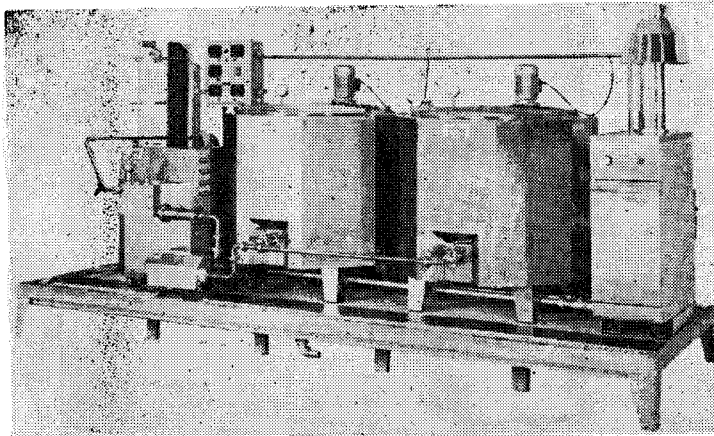
<표 4> 식용유 생산설비 : 생산액과 업체별 시장 점유율(1980)

업 체	생 산 액 (10억리라)	시장점유율 (%)
CMB	10.0	59.5
Gianazza	5.3	31.5
Imea	1.5	9.0
총 계	16.8	100

다국적 기업인 Alfa Laval은 600명의 종업원을 가진 가장 큰 기업이다.

Peralisi그룹은 이 분야에 자사매출액의 70%를 충당하며, Alfa Laval의 유공업분야에 매출액의 20%, 그 나머지는 낙농산업설비제조에 활동하고 있으며, Gianazza는 유지방산업기계를 생산하고, OMI Sud는 매출액 중 20%를 올리브유 채취기계를 생산한다.

이들중 CMB, Gianazza, Imea 등이 식용유 추출과 걸유설비들을 생산한다. 또한 이 분야의 제 2위 업체인 Alfa Laval은 지속적 Cycle 설비에 관한 특허를 가지고 있다.



아이스크림 혼합가공을 위한 밀폐식 순환설비

<표 5> 주요 수출업체 및 총 매출액 대
수출의 비율 : 수출시장 점유율

업 체 명	수출/ 총매출액	수출점유율
Pieralisi 그룹	56.6	29.6
CMB	90.0	24.9
Gianazza	95.0	13.9
Alfa Laval	40.0	9.7
Rapanelli	50.0	8.9
De Vita	40.0	4.7
기 타	18.5	8.3
총 계	52.0	100

Pieralisi, Rapanelli 등은 주문에 의해 설비를 제공하며 이들의 생산은 현저한 집중도를 보여 선발 4개업체가 전체 생산의 63.2%를 점유하며 선발 8개업체는 무려 90%를 점유한다.

또한 Pieralisi 그룹과 Alfa Laval은 지속적 Cycle 설비생산의 64%를 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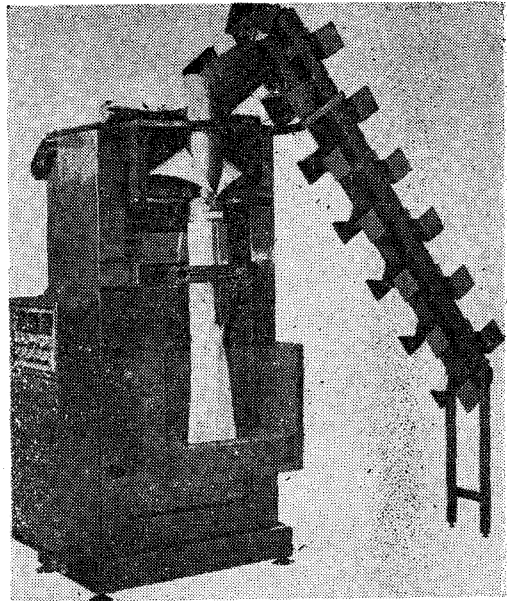
식용유 추출 및 정제 설비분야에서는 80년도의 경우 CMB가 생산의 대부분을 점하였다 (59.5%).

수출은 1980년도에 이 분야 매출액의 절반 이상이 수출에서 이뤄졌으며 그중 선두 4개업체들이 수출액의 78.7%를 차지하였다.

특이할 일은 식용유 추출 및 정제설비를 생산하는 업체들의 수출이 증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1980년도에 CMB는 총 매출액의 90%를 수출하였으며 이는 전체수출의 59.2%를 점하였고 Gianazza는 총 매출액의 95%, 그리고 32.9%를 점하였으며, Imea는 90.5%, 7.9%를 점하였다.

▲ 주요 업체 명단

★ Loe Vita Fratelli S.P.A.
Via del Pontasso, 5
16015 Casella



치즈 포장기계

- ★ Alfa Laval S.P.A.
Via Pusiano, 2
20052 Monza
- ★ Gianazza F. Ili S.P.A.
Via Cadorna, 78/84
20025 Legnana
- ★ O.M.T. Officine Meccaniche
Toscane S.P.A.
Via Arnolfo, 51
50121 Firenze
- ★ Rapanelli Fioravante S.n.c.
Viale Umbria, 16
06034 Foligno
- ★ C.M.B. Costruzione Meccaniche
Bernardini S.P.A.
Via Petronella
00040 Pomezia
- ★ Pieralisi Sud S.P.A.
Str. Statale km 117,900
70026 Modugno
- ★ Omisud S.P.A.
88019 Vibo Valsetia M.

'82이태리 食品·飲料 關聯 展示會

전 시 기 간	전 시 회 명
VERONA 18-25	VINITALY(국제 포도주 전시회) Organizer : Ente Autonomo per le Fiere di Verona, Casella Postael, 525, Verona
MARSALA(TRAPANI) 27 June-1 July	ITALIA VINI '82(이태리 포도주 전시회) Organizer : Ente Fiera vini dei Paesi mediterranei, Viale dell'Enoteca, 1, Marsala(Trapani)
GENOVA 13-21 November	13 TH BIBE(국제 포도주, 음료 및 주조 전시회) Organizer : Ente Autonomo "Fiera internazionale di Genova", Genova
MILANO 19-24 March	IPACK-IMA '82 INTERNATIONAL SHOW OF PACKING, (포장, 수송 및 식품기기 국제전람회) Organizer : Ente Autonomo "Fiera Internazionale di Milano", Largo Domodossola, 1, 20145 Milano
REGGIO CALABRIA 27 March-4 April	31ST INTERNATIONAL CITRUS FRUIT FAIR(국제 과일 전람회) Organizer : Azienda Autonoma "Fiera di Reggio Calabria", Reggio Calabria
TORINO 15-19 May	MIAD--(국제 제과식품 전람회) Organizer : S.r.l. Pubblieuropress, Corso Porta Romana, 87/B, Milano
BOLOGNA 5-13 June	25TH SIA--(국제 식품 전람회) Organizer : Ente Autonomo per le Fiere di Bologna, Piazza della Costituzione, 6
MILANO 24-31 October	12TH MIPAN--(국제 제빵, 제과기계 전람회) Organizer : EXPO CT, Via Serbelloni, 2, Milano
MILANO 23-27 October	CONFECTIONERY AND ICE-CREAM INTERNATIONAL EXHIBITION(제과 및 아이스크림 국제전람회) Organizer : EXPO CT, Via Serbelloni, 2, Milano
MILANO 23-27 October	12TH EUROPE BEVERAGES EXHIBITION--E.B.E. (제 2회 유럽 음료 전람회) Organizer : EXPO CT, Via Serbelloni, 2 Milano
LONGARONE(BELLUNO) 25 November-1 December	ICE-CREAM INTERNATIONAL EXHIBITION (아이스크림 국제 전람회) Organizer : "Pro-loco", Longarone(Belluno)

■ 본 전시회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이태리 무역관(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북창동 70-1, 범한빌딩 9층, 전화: 779-0811~2)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